

농업 세대 전환, 청년의 목소리로 그린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차 청년농포럼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3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농포럼」을 개최하고, 1차 포럼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본부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이 ‘청년농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본질적 가치와 청년농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청년농업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단순히 영농종사자의 세대 전환을 넘어 농촌사회 전체의 세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가들(문화예술가, 소상공인, 교사, 간호사 등)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농업인을 포함한 청년의 역할과 세대 전환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 등 정책거버넌스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포럼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청년농정책 개선과 세대 전환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농포럼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농업의 성공적 세대 전환과 청년농업인 정책개선 방향,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어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은영 (02-6260-1251)
		담당자	사무관	정인승 (02-6260-1244)